

제 3 복음서의 저자인 누가를 바울은 “사랑하는 의원” 이라고 불렀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가의 고용주였다는 여러가지 추측이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사들은 흔히 노예들이었습니다. 어떤이들은 누가가 데오빌로 개인의 의사였고 또한 그의 종이였다는 이론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지 아닌지는 추측할뿐이며 그것을 깊이 탐구할 가치는 없습니다.

누가는 헬라인 이었고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인정을 받은 성서의정경에 그의글이 들어가는 특권을 가지게된 유일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 누가가 쓴책이 두권이 있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쓴 글로서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행 1:1) 라고 합니다.

데오빌로가 전혀 실제 인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로 데오빌라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자” 라는 말이며 누가는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소망이나 열정이나 부모들이 바라는 것에 따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가 실제 인물이 아니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상, 데오빌로각하 라고 부른것을 보면 그는 실제로 로마제국의 한통치자였으며 그 직함은 로마제국 안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것이었습니다.

누가는 일장의 네 구절에 걸쳐서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소개 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군 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1:1-4).

누가는 이러한것들에 대하여 실제로 증인이었던 사람들로 부터 들은 메세지를 선포합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을 둘러싼 환경에 대하여 철저히 이해하려고 마리아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면접했습니다. 의사인 누가는 의학적으로 관련이있는 여러면에 흥미를 느꼈을것입니다. 일장과 이장에 있는 사건들의 정보는 마리아로 부터 직접받은것이 분명합니다. 마리아와 면접하고 질문하여 일장과 이장에 있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 두장에 담겨있는정보를 다른 어떤 복음서에서도 이처럼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수 없습니다. 누가는 베드로와 요한과 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 눈으로 직접본 증인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의 관계와 그분의 하신일과 사역에 대하여 말해주었습니다. 누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더 철저히 이해하려고 더욱더 자세히 물어 보았을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하였다고 느껴지는 것을 데오빌로에게 쓰기 시작했으며 그가 그것을 듣고 그들은 것에 대하여 확실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누가는 예수의 복음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그의 탄생과 무엇보다 먼저 예수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할 사람 이었던 침례요한을 다루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아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1:5).

당장 그는 여기에 있는 그의 해설의 첫부분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가랴는 레위족속으로 그때 제사장들 중의 한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비람의 계열이었으며 그의 아내도 레위 족속이었고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에는 약 20,000 명의 레위의 남자 후손들이 제사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20,000 명이 계속해서 성전에서 섬기는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각 가족들이 그들의 차례대로 일주일씩 일년에 두차례 섬겼습니다. 섬기는 차례가 다가오면 제비를 뽑아 섬겨야할 특별한 분야를 결정했습니다. 제사장이 제비를 뽑아 일생에 단 한번 하나님 앞에서 향단에 분향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일생에 하루를 향을 가지고 주님앞에 있는 향단에 나아가는 특권은 통상적으로 일생에 단 한번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실로 사가랴에게 의미가있고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섬기는동안 이러한 특별한 임무를 위하여 제비가 뽑힌것이었습니다.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1:6).*

세상을 볼때 이 두 아름다운 의인들은 참으로 귀중한 분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깊이 관련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이 그들에 관해 들어보지도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깊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들에 관해 듣게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듣는것은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1:7).*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늙었고 허리가 꼬부라졌으며 연약합니다. 늙은 결과로 연약하여 진것입니다.

그 문화권에서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법적으로 이혼할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엘리사벳을 아이를 낳지못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한다면 그녀에게는 말할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이 받아 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할 여지도없이 그들이 나누는 굉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괴로움과 슬픔도 함께 나눴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새 (1:8).*

그들에게는 제사장 의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섬기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위해 들어왔던 한주간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1:9).*

거의 그의 평생에 단하루만이라도 섬길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것에 대한 이 노인의 감격이 어떠했겠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지금쯤에는 분향할 기회 가지는것을 아마 포기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았을때 그의 제비는 그날 주님앞에 분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1:10).

이제 제사장들은 제물을 드렸던 제단에서 타는 숯을 취하여 조그마한 금대접에 담아가지고 향단앞으로 나갑니다. 아침과 저녁에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들은 제단에서 숯을 취하여 조그마한 금대접에 넣고 그위에 향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들은 조그마한 향로를 흔들면서 향단 앞으로 나아가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연기가 올라가게되며 그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어떻게 받으시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앞에 향기로운 냄새와 즐겁고 아름다운것으로 하나님앞에 올라갑니다.

계시록 5장에 어린양이 보좌에 앉으신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실때 요한이 말하기를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 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계 5:8) 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법과 모든 설비와 제사하는법을 주신것을 기억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차례 반복해서 “너는 규정에따라 정확하게 만들도록 주의할것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그에게 준 식양에따라 정확하게 성막을 만드라고 하신 것은 이 모든것이 하늘에 있는것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장면과 하나님의보좌와 모든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싶거든 성막을 공부하면 알수있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에 있는것들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땅에 있는 제사장들이 작은 금대접을 취하여 그것들을 향으로 채우면 향기로운 냄새가 하나님 앞에 올라 가는것같이 하늘에서도 그러합니다. 계시록 5장을 보면 그것이 성취된것을 24장로들이 향기로 가득한 향 즉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작은 금대접을 바치는 하늘나라의 장면을 볼수있습니다.

그것은 참 아름다운 상징입니다. 성전안의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 있는 향단앞에서 분향한것입니다.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이 일년에 한번씩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성소는 지성소의 밖에 있는곳 입니다.

그가 성소에 있을동안 무리들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왔을때 그곳에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그당시의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행사였고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부터 이 축복을 받으려고 기다렸습니다.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11-13).

무슨 기도를 말합니까? 그는 오랫동안 “주님,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고 기도하도록 격려해줍니다. 그가 이제 노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당히 늙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오 주님, 아들 하나 갖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13).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입니다. 실제 이름은 요하남 (Johanam) 이며 줄여서 요한 (John) 이라고 합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1:14-17).

이 사건 이전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말라기 4장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보라 여호와와 그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는 것이었습니다 (말 4:5-6).

그것은 천사가 주님의 향단에서 사가랴를 만나기전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것은 구약성경의 마지막 약속을 주신 이후 400년간 주님이 잠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약속의 성취가 신약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질 단계에 있고 아들이 태어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나아갈것입니다.

침례요한과 엘리야의 오심에 관련된 예언에 대하여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었다고 했으며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그의 권세에 대하여 물었고 또 누가 그에게 이런일을 하도록 권세를 주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었을때 그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입니까?” 라고 물었을때 그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라” 고 했습니다 (요 1:20-23).

메시야가 두번 오신다는 사실에대한 혼란이 있습니다. 여기 이 복음서에 기록된 그의 오심은 첫번째 오심입니다. 두번째 오심은 우리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번째 오시기전에 엘리야가 먼저 나타날것입니다.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권능으로 왔던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드릴수 있다면 주님 앞에 엘리야가 먼저와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는 약속이 침례요한에 의해 성취된것도 받아 드릴수 있을 것입니다.

메시야의 두번 오심과 또한 엘리야의 두번온다는 사실에도 대해서도 혼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두번 다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사람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나실인이 되어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것 임이라.

잠시후에 마리아는 어디 있었는지, 그녀를 통해 메시야가 탄생하리라는 소식을 언제 들었는지, 임신한지 육개월이된 엘리사벳을 찾아 유다의 작은 고을에 간것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마리아가 걸어 들어가 엘리사벳을 문안하니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 노는것을 느낀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때 의심할 여지도 없이 요한도 태중에서 성령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입는것은 참으로 흥미있는 일이죠.

사가랴가 아들을 얻도록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참된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어렴풋한 소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가지게 되리라고 말했을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천사에게 의심하며 물었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보라 이 일의 되는 날까지 내가 병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라 하더라 (1:18-20).

하나님이 특정한 일을 하시도록 빈번히 우리의 믿음을 크게 강조하는것은 흥미있는 일 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실수 없는것 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천사가 사가랴에게 “좋아, 네가 표적을 원한다고? 네가 믿지 않음으로 어린 아이가 태어날때까지 네가 말할수 없게 되리라” 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려는것은 우리가 믿든지 안믿든지 상관없이 이루실것 입니다. 우리의 불신이 하나님의 일을 중단 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빈번히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일이 전적으로 내가 그것에 매달려야 되고 또 믿음이 있어야 되는것처럼 느끼기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에 실패하면 그로 인해 구원받을 사람들을 잃은것처럼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성취됩니다. 우리의 믿고 믿지않음이 실제로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그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나와 나의 충성에 달려있다는 생각조차 하기 싫기때문입니다.

하만이 정해진 어느날 모든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조서에 왕의 서명을받음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들을 전멸하겠다는 위협을 받았을때를 기억하실겁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연을 전하여 왕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간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의 회답이 “왕의 신복과 왕의 각 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무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홍을 내어 밀어야 살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지가 이미 삼십일이라 하라” 고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회답을 보내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려하십니다. 그러나 순종치 않는자는 모든것을 다 놓칩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충성스러웠더라면 경험할 뻔했던 모든 상급과 축복을 잃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불신이 하나님이 뜻하신바를 멈출수는 없습니다.

사가랴는 불신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나는 늙었고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내게 아들이 있겠다는 말이 무슨뜻인지요?” 라고 대답했을때 천사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가브리엘이 이 특별한 사건 이전에 이땅에 마지막으로 나타난것은 500여년전에 선지자 다니엘에게 나타나 메시아의 오실때에 관한 분명한 예언들중의 하나를 다니엘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찌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 이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육십 이 이레 후에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는 예언을 전해준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오실때에 관한 이 놀라운 예언을 전해준 천사가 다른이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친구 가브리엘 이었습니다. 그는 시간에 관계가 없는것 같습니다. 500년이 지난후에 다시 나타났기때문입니다. 그는 그전처럼 젊어 보였겠죠. 이제 그 천사는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것이며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나아갈때 주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자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메시아 의 앞서 가는자가 되리라는것을 사가랴에게 알립니다.

하나님이 우주만물의 질서를 세우신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것에 대한 모든 섬세한일을 가브리엘이 책임지도록 감독으로 세웠을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준비하고, 마리아를 준비하기위해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도 가브리엘이었으며 또 여기서는 그가 사가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로서는 비밀을 지키는것이 어려운것 같습니다. 500여년전에 그는 다니엘에게도 나타나 메시아의 오실때에 관해 약간의 비밀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500여년후에 다시 여기에 왔습니다. 가브리엘을 만나보면 재미있을것 같습니다. 이전 처럼 젊고 새롭게 보일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큰 책임을 주신 특별한 천사들 중의 하나입니다. 나는 빨리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나는 그가 내 거실에 앉아 개를 쓰다듬어 주고 있을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책을 읽으신분들은 내가 무슨얘기하는지 아실겁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히 여기더니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병어리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1:21-23).

한 차례마다 일주일씩 섬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가 며칠후에 그곳 예루살렘을 떠나 그 근처의 유다 지방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 보시는 날에 인간에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1:24-25).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을수 없는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녀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1:26-27).

세가지 용어를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약혼 (engaged), 정혼 (espoused), 결혼 (married) 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결혼은 중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살썸 되었을 때도 약혼이 가능했습니다. 부모들이 모여서 친구일수도 있습니다. 한 부모에게 아름다운 딸이있고 또 다른 한부모에게 작은 아들이 있으면 그들은 “우리가 서로 친구간인데 당신네 아들이 우리 딸과 결혼하는게 어땠겠소? 자, 약속합시다.” 그러면 이 소년과 그 소녀는 네살이 되었을때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약혼했다” 고 말합니다. 그들의 부모가 약속을 맺었기때문에 그들은 남편과 아내가 될것입니다. 이

약속이 결혼 만큼이나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번덕스러운 마음으로 바꿀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들은 젊은이들이 자기의 짝을 찾을수있는 충분한 지혜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장함에 따라 보통 15 - 16세의 나이에 결혼하게 됩니다. 그들의 연령이 차면 결혼식이 있기 일년전에 정혼 (espousal) 이라고 불리는 기간에 들어가게되며 그때부터 마치 두사람이 결혼한것처럼 서로가 철저히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기간 동안에 결혼이 완성되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이 정혼기에 들어가면 완전히 결혼한것과 다를바 없으며 남자가 그것을 무효시키려면 비록 결혼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혼증서가 있어야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정혼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결혼하기로 완전히 약속했으나 후에 있을 결혼식때까지 그들은 같이 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란 결혼이 완성되기 일년전의 정혼 시기에 있었으며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 였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찌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1:28-31).

헬라어로 예수 (Jesus) 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Jehoshua) 이며 그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요셉은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한것을 발견하고 그는 고민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리아에게 이혼증서를 주어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를 드러내면 돌로 맞아죽게 되기때문 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날 밤에 요셉에게 찾아와서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마 1:20-21). 마리아와 요셉은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요셉에게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고 말했을때 그는 “그가 자기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고 던붙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의 임무를 표현하기 때문에 지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온다는것입니다. 여호수아 즉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난후에 천사 가브리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1:32).

모든 구약성경의 예언들을 살펴볼때 메시아가 다윗의 위에 앉으사 질서를 바로잡고 의와 공의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확립하실것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1:33).*

계시록에 있는말씀을 헨델은 영광스러운 음악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만왕 의왕 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1:34).*

사가랴의 질문과 마리아의 질문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했습니다. 마리아는 오직 절차들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의 질문은 의심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그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 질는지를 알고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잠시후에 에리사벳이 지적한것입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리라.”

마리아는 주께서 그녀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질른지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했던 질문 이었습니다. “나는 처녀로서 사내를 알지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1:35-38).*

마리아를 중보자로 심지어 어떤이들은 동등되는 구속자로 추앙하려는 카톨릭을 반박하는 개신교 그룹들이 있으며 심지어 그들 중에서도 다투며 심지어 마리아를 격하시키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총을 입은자라고 천사가 말한것과 같이 주님이 마리아와 함께 하였고 그녀는 여인들 중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려고 도구를 선택하실때 하나님께서 철저히 준비하신 도구를 선택하신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마리아는 여태까지 있었던 어떤 여인들보다 아름다운 인격을 갖춘 사람중의 한사람이었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잘 볼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녀는 오직 16세밖에 안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서 나타나는 놀라운 인격의 깊음이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와 그녀의 정혼한 요셉과 의 사이에 문제를 일으킬 이 놀랍고도 이상한 일들을 마리아에게 말할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녀는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자신을 하나님의 목적에 맡겨버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제 삶에 이루소서” 라고 한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헌신입니다. 마리아는 내가 만나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또 다른 한 인물입니다. 얼마나 특출한 인물입니까? 그녀는 진실로 이세상에서 가장 축복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문화적인 배경으로 볼때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세상에 보내시는데 사용하실 도구가 되는것은 모든 유대인 소녀들의 꿈과 소원과 바램 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 여인들이 남자 아이를 낳았을때 그 아이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아들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지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것을 저주로 여겼던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길이 없습니다. 모든 젊은 유대인 소녀들의 소망은 하나님이 사용 하실 도구가 되는것 이었으며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고 또 소망 이었습니다. 물론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꿈을 잃었습니다. “오, 나는 그 도구가 될수없어.” 그것은 말할 여지도없이 대단히큰 실망이며 그들은 “나는 하나님이 그의 목적을 달성하시려고 쓰실 도구가 될수없어” 라고 하면서 탄식합니다.



오,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한 도구가 되는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날 드루족 (Drews) 은 참으로 재미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들 자신들도 모르는 종교를 가졌습니다. 드루 종교는 이슬람교에서 빠져나온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제사장들만 그들이 무엇을 믿는가를 알뿐이고 평민들은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모릅니다. 제사장들이 모든 종교의식을 행하며 그들이 드루족속인것도 알고 그들의 종교에 대하여도 모든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제사장들만 그것이 무엇에 관한것인지 알뿐입니다. 제사장들은 알지만 평민들은 모릅니다. 제사장들이 많습니다. 오느날 드루 사람들의 동네에 가보면 앞에 큰 호주머니가 달린옷을 입은 사람들을 볼수 있을것입니다. 드루족이 믿는 것중의 한가지는 메시아가 오실때 그가 남자로 태어날것이라는것입니다. 드루족의 동네를 지나가는것은 황홀한 경험으로 앞에 큰 주머니를 단 바지를 입고있는것을 볼수있으며 이 주머니들은 앞에 축 늘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러한 옷을 입는 이유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택함을 받을경우를 대비하는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들이 메시아를 임신하게될 사람들이며 앞에 큰 주머니가 달린 바지를 입고 준비하는것입니다. 그들은 임신을 위한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들은 임산부의 옷을 이미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처녀들의 소망 이었습니다. 그 소망이 나사렛의 한젊은 처녀에게 이루어 졌습니다. 인격으로나 영적인면에서 아름다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처녀였습니다.

*이 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1:39-40).*

고전 영어에서 인사한다는 말과 현대 영어의 인사 한다는 말이 다릅니다. 결혼식에서 “신부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차 대전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전영어로 인사한다는말을 이해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이제 신랑과 신부가 키쓰하겠습니다” 로 바졌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1:41-45).*

내 생각엔 여기에서 유산에 에대하여 언급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요한이 태중에서 육개월이 되었지만 마리아가 말했을때 그가 태중에서 알아듣고 반응하는것 같은 증상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중에 있을때 목소리를 듣고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임신한 어머니들은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 이야기 해야합니다. 태중에 있을때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태어난후에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편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것은 엄마의 목소리를 벌써 들었으므로 알기때문입니다. 태아의 발달에 대하여 재미있는 사실들이 더욱더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육개월된 요한도 마리아의 목소리를 들었을때 엄마의 태중에서 기뻐 떨수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성령에 의해서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의 말씀이 있으며 그 아이가 마리아의 말에 기뻐 뛰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있는 사회에서 옳고 그른것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아침에 얘기했습니다. 또 철학이 우리의 문화에 끼친 영향도 얘기했습니다. 도덕이 그 사회의 받아드려질 행동과 받아 드려 지지 않을 행동을 결정합니다. 또 선한것과 악한것과 옳은것과 그른것도 도덕이 결정합니다. 이 특별한 철학적인 결정에서 만일 그 사회에 사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것을 행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선한것이 되거나 옳은것이 되는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사회 자체의 도덕에 의해 결정 되었기때문입니다.

옳고 그른것이 그사회에 행해지는것에 의해 엄격히 결정된다면 그사회는 그다지 좋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특정한 사회는 더욱 그러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권리가 전혀없는 사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가정에서 삼촌이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것도 완전히 받아드려진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회는 많은 아내를 가지거나 또 많은 남편을 가질수 있는 사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사회에서 받아드려 지는것이고 아무도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때문입니다. 도덕이 옳고 그른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것을 행할때 그것이 갑자기 옳은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산을 많이하고 수백만의 순진한 아기들을 죽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덕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그렇게 하는것도 괜찮다고 여기며 아무도 그것을 반대하여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이 곁에서 내 감정을 다스리기 아주 어려울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들과 대화 하기위해 그들의 수준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어린 아이들 때문에 내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버립니다. 나는 아이들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작은 소년들과 소녀들을 다 좋아합니다. 내겐 아이들과 대화하는것처럼 즐거운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들의 얼굴표정을 연구하기를 즐깁니다. 그들의 습관을 연구하는것도 즐겁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연구하는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들을 안고 여러 시간동안 쳐다보며 그들의 얼굴의 표정의 변하는것과 모든것을 지켜볼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발달하고 자라는 모습을 바라보는것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학대하는것을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 어른이 어린이를 의도적으로 아프게하거나 상해하거나 때리거나 파멸시키는 어린이 학대가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상 금년에 로스엔젤리스 카운티에서 살해된 어린이들의 숫자가 로스엔젤리스 역사상 가장 많았습니다. 그것은 최고 기록 이었습니다. 어린아기들이 맞아서 죽고 물에 빠져죽고 질식하여 죽거나 학대를 받아 죽었습니다. 금년에 그 사상률이 최고의 비율에 도달했으며 나는 이것을 참기가 어렵고 온 사지가 뒤뜰립니다. 이것을 오래 생각하면 내게 너무 상처를 받기 때문에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유산을 합법적으로 만듬으로 인해 생명의 가치를 저하시키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봅니다. 어린아기가 탄생하기전에는 학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봅니다.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니깐 아이를 학대해도 별 차이가 없지않는가? 그것은 실제로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직까지 잘모르기때문이죠. 유산의 합법화가 어린이 학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알수없으나 내가 알고 있는것은 생명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사실이며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본주의적이며 자유주의인 국회의 결정들로부터 사회에 극히 위험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나는 단지 여러분들을 경고 하려고 이 말을 할뿐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오랜기간동안 다룰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일이 오래 지속되도록 버려 두시지 않을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신다면 나는 충격을 받을것입니다.

내가 할말은, 만일 내가 하나님 이라면 벌써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1:45a).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1:45b-46a).

여기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할때 이젊은 처녀의 아름다운 믿음의 깊이를 통찰할수있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 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공홀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공홀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킴).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1:45-56).

아마 요한이 탄생할때까지 었던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1:56).

아마 임신 기간동안 도와주기 위하였나봅니다.

마리아는 이제 51절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혁명에 대하여 말합니다. 제일먼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습니다.” 첫번째 혁명은 진실로 하나님이 교만한자를 흠어시는 개인의 혁명입니다. 두번째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시는” 경제적 혁명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공홀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팔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저희가 가로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히 여기더라 (1:57-63).

여인이 산고를 할때 이웃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며 악기와 음식을 가져와서 아기가 태어날때 벌릴 잔치를 준비합니다. 아기가 태어났을때 그들은 “사내 아이입니다” 라고 하면 음악기구를 연주하기 시작하고 모두가 춤을 추면서 큰 잔치를 벌립니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났을때 “계집 아이입니다” 라고 하면 악기를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엔 집안에 사내 아이를 낳는것을 큰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계집 아이는 무시해 버렸습니다. 여인들이 마땅히 받아야할 영광과 존귀의 적절한 수준까지 높이기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필요 했습니다.

여성들은 예수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려야 할것입니다. 여성들이 꼭 해야할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한 영향을 주지못한 문화권속에 들어가서 여성들의 역할을 살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일로 인해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게 될것입니다.

베두인 사회나 인디안 문화권이나 뉴기니아 에 사는사람들의 문화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땅의 주인들 이란 책을 읽어 보십시오. 그 책에 기독교가 들어오기전의 뉴기니아의 문명에 관한 놀라운 사회학적 통찰력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일, 즉 여인들의 위치를 아름다운 적절한 곳까지 이끌어 올리신것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하실것입니다.

사가랴가 서판에 쓰기를 마치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함께하심이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1:64-67).

마리아가 그녀에게 인사했을때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이제 사가랴가 성령 충만해 졌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1:67-68).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보신것을 송축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예언할때 첫번째 선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돌아보셨다는것 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2,14).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아보신 목적은 속량하시기 위함 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목적을 알리실때 이렇게 선언 하셨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 1:19). 속량 또는 구속, 그것이 주님의 오신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일으키셨습니다. 빨은 항상 능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구원의 능력을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했습니다 (롬 1:16).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전 1:18).

오,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의 백성을 돌보셨도다. 하나님이 속량하시며 그의종 다윗의 집안을 통하여 구원의 빨을 이рки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라 (1:70).

구세주와 메시야에 관한 예언들은 인간이 존재하기 시작하여 타락하기시작할때 부터 존재 했던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고 하셨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죄가 여자의 후손에 의해 멸망될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을 가져오신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하나님이 여자의후손, 즉 동정녀를 통해 탄생한 아기에 의해 우리를 속량하신것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1:72-73).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1:74).

구원이란 무엇에서 구조를 받는것 이상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두려움 이없이 그분을 섬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성결과 의로 (1:75b).

성결과 의 라는 두단어는 옳은것이라는 근본적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결은 옳은 인격인가 하면 그 반면에 의는 행실이 옳은것을 말합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에서 나오는것입니다. 성결이 뿌리입니다. 의는 뿌리에서 솟아나와 맺는 열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결이 없이 의롭게 되려는 노력에 따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의롭게 되려는 노력은 실패할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결없이는 의로움을 유지해 나갈 강한 동기가 없기때문입니다. 먼저 핵심이 정결해야합니다. 의로운 행동과 활동을 가지려면 성결과 올바른 태도가 있어야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로 행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성결로 섬기도록 하시려고 우리의 심령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바꾸는 일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결을 떠난 의의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완전히 실패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실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 □□□□ □□□□□□ □ □□ □□□ □□□ □□□□ □□□□” (마 5:20).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어떤것보다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누가 바리새인들 보다 더 의롭게 행하였습니까? 그런데도 너희의 의가 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수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의 의는 성결이 없기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는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그들의 태도는 부패했습니다.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 같으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시의 겉모양은 깨끗하나 잔은 해충으로 가득찼도다.” 겉은 깨끗케하나 그안에는 성결이 없는 의가 있지만 진적으로 받아드려 질수 없는것입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이유는 성결에서 흘러 나오는 의를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종신토록 (1:75).

이제 어린 아이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것은 앞에갈 어린아이 거기에 누어있는 작은 요한 자신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1:76).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레 요한보다 큰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것이라.”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취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1:76-79).

하나님이 그의 자비로 우리를 돌아보사 어둠과 그늘에있는 사람들에게 비치시려고 높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평화의 길, 곧 하나님과의 평화로 인도하시려는것입니다.